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TO THE EMOTIONS AND BEHAVIORS IN CHILDREN*

권자영* · 안동현** · 이정숙***

Ja Young Kwon, M.A.* · Dong Hyun Ahn, M.D.** · Jung Sook Lee, Ph.D.***

요 약 : 본 연구는 신체적 학대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정서 및 행동상의 후유증을 파악하고자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았거나, 약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심한 학대를 받은 학대아동집단과의 정서 및 행동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소의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표집된 만 6세에서 12세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요보호 남자아동으로 대상수는 6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신체적 학대를 평가하기 위해서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척도를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정서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제작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집단이 비교아동집단보다 문제행동 총점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항목별 비교에서 학대아동집단이 비교아동집단보다 사회적 위축·신체증상·정서적 불안정·강박-우울·과잉활동·정신병-성문제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공격성과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신체적 학대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양상을 제공해 주며, 학대아동의 치료와 예방에서의 준거틀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 신체적 학대 · 아동행동조사표(CBCL) · 정서 및 행동 문제.

서 론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끊임없이 존재해 온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안에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행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현대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화, 개인주의의 팽배, 취업여성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완하는 가족지원체계의 취약성은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확인, 치료·예방하기 시작한 것은 비록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 사회의

*1991년 5월1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연되었음.

Presented at the Annual Academic Meeting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on May 18, 1991

**한림대학교부속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Hwang Sacred-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Department of Social Work,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없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아동에게 파괴적인 환경의 재생산을 가속화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윤영숙, 1989).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짧으나, 그간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학대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영희(1984)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아동의 90% 이상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고, 4%는 학대를 가출의 계기로 들고 있으며, 23.8%가 학대가 두려워 집에 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안동현, 홍강의(1987)가 전국 소아과전문의와 가정의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6.1%가 구타당한 환아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어린이보호회(1987)에 의하면 아동의 97.1%가 매맞은 경험이 있고, 이중 3.6%는 이가 부러지고 고막파열·팔다리 골절·기절할 정도의 심한 구타를 당했으며 4.3%가 매일 매를 맞는 신체적 학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광일, 고복자(1987)의 연구에서도 8.2%는 분명히 학대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가 경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경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동양육에 있어서 체벌의 사용이 용인되어 왔을 뿐 아니라 체벌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온 사회문화적 특성(최상진, 1981) 및 가부장적인 전통(김두현, 1985), 그리고 아동과 성인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장유유서의 전통(유안진, 1985)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불식되어 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조치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후수단적, 처벌적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근거는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1985년 학대 및 착취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권익보호 신고소”가 설치되고, 1989년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가 창설되는 등 사회적 관심과 관련 사회적 대책이 부재상태에서 초보적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 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의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성장하여 범죄, 주벽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아동집단과 비교아동집단을 대비시켜 유의한 변수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신체적 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그 연구의 결과로서 관심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상황을 치료, 예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아동집단과 비교아동집단간의 문제행동 총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문제행동의 빈도를 비교하여 본다. 둘째, 학대아동집단과 비교아동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요인별로 비교·분석하여 학대가 어떤 요인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만 6세~12세 사이의 아동 중 서울시내에 위치한 아동복지기관 4개소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아동 및 아동학대는 논외로 한다.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자체가 아동학대에 관한 임상 및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상이한 사회문화적 집단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며(Gelles, 1982),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사회적 서비스제공자들간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Zigler, 1982). 따라서 아동학대는 그 정의 자체가 다양하고 모호한 성격을

떠고있다. 최초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것은 1962년 Kempe가 '피학대아중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Kempe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의 폭도 계속 확대 되고 인식 또한 뚜렷이 증가하여, Fontana(1971)는 아동에 대한 부당취급중후군(Maltreatment Syndrome)이라는 개념을 써서 아동학대를 부적절한 아동양육으로 보고 정서박탈, 방임, 영양부족 등의 광범위한 범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Gil(1970)은 그의 개념에 사회문화 및 경제적 측면의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아동학대의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방임이 모두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다음의 3가지 공통적 요소 첫째, 부모나 보호자의 표준적인 행동-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 둘째, 고의적이며 비우발적으로 가해진 상처나 상해이건, 무의식적으로 가해진 상해나 상처이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 셋째, 상해가 의학적, 법적, 사회적으로 개입을 요할 정도로 충분한 학대나 방치 행위로 집약된다(Kamerman과 Kahn, 1976).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보면, 미국 대부분의 주법령에서는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하는 사람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상해를 포함하는 모든 손상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18 조에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11항목의 금지행위를 두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학대는 Halperin(1979)의 지적과 같이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태만, 의료적 태만, 정서적 학대, 정서적 태만, 교육적 태만, 유기, 기타 복합적 영역의 9가지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김연미(1990)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양육의 태만의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의 유형중 특히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하는데

이는 신체적 학대의 규정이 보다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데(Gil, 1970) 의거한다.

2.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양상

아동의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종합하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개인내적인 요인으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체적인 불구동의 신체적 결함과 과중한 피로감,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에 비하여 실현불가능한 요구수준을 갖고 있어 종종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결혼가정, 가족간의 불화, 양육자의 역기능적 행동 및 태도 등 가정환경의 결함을 들 수 있고 또한 그의 사회환경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일련의 뚜렷한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서적 일탈을 가져오며 폭력의 세대간 전승등 사회문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1) 신체적 손상

학대의 결과는 타박상, 화상, 골절, 탈골 등의 상처와 흉터와 같은 흔적을 남기는 등 신체적 손상을 가져온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신지체나 언어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미국의 경우 신체적 학대로 인해 구타아동의 10%가 사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Light, 1973).

2) 정서적, 행동적 손상

학대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정서적, 행동적 손상을 반사회적 행동특성, 내향적 행동특성, 사회적 상호작용상의 특성 그리고 자아개념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반사회적 행동특성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 충동적이고, 도전적, 반항적, 파괴적이며, 잔인하고 거짓말과 도벽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인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inard(1982)는 5~10세의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집단에 대한 정서적 적응 상태를 밝혔는데 주로 동료집단에 대한 공격행위, 과잉활동등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광일, 고복자(1987)의 연구에세도 부모에

게서 구타를 경험한 아동이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특성을 보였다. 최윤라(1988)의 연구에서도 예외없이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정준(1987)은 저소득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유아의 특성 연구에서 학대받은 유아의 60% 이상이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Elmer(1977), Straker와 Jacobson(1981)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대받은아동과 학대받지 않은 아동간의 공격성의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2) 내향적 행동특성

Brenner(1984)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없으며 복잡하고 성가신 행동을 하기 싫어하며 기분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내며 또래와도 공격적이지 않으면 관계를 기피한다. 또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기가 죽어있으며 늘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다. George와 Main(1979)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영아들이 불안, 회피와 비슷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Halperin(1979)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거의 표현하지 않는 수줍음을 보이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긴장하여 신경증 및 우울증을 나타내며 쉽게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쉽게 포기하는 위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3) 사회적 상호작용상의 특성

대체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으며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며 친구가 없다. 학대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감정입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최윤라, 1988)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또다른 특성으로 두드러진 것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무관심하며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4) 자아개념의 특성

Brenner(1984)는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방치된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의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린구(1988)의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구타의 빈도가 잦아오면 잦을수록, 구타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Green(1985)은 아동학대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의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만 6세에서 12세의 국민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서울지역에 분포된 아동상담소 2개소, 교호시설 1개소, 보육시설 1개소 등 4개기관을 통해 선정된 기·미아, 가출·부랑아인 요보호아동 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정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아동행동조사표(CBCL)를 적용하는데 필요조건인 입소기간이 최소한 2개월이상(Achenbach & Edelbrock, 1983)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1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26일간이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저자중 1명이 각 기관의 아동복지 지도원이나 보육사등의 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내용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여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 중 배포된 질문지는 총 95부이며 그 중 81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5.3%)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7부와 표본수가 너무 적어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여아 13부를 제외한 61부만이 분석을위해 유효한 연구대상으로 자료처리에 사용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모두 남자아동이었으며 연령은 11세~13세가 전체의 60.7%로 학령기에서도 고학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대상자 부의 연령은 40~50세가 26.2%, 모의 연령은 30~40세가 29.5%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부모의 교육 정도는 중졸이하가 각각 39.3%, 34.4%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직업은, 부의 경우 단순 노무직이 37.7%로 가장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61)

특 성	구 분	인원수(명)		구성비(%)	
		부	모	부	모
부 모 의 연 령	구 분				
	30세 미만	0	1	0	1.6
	30~40세 미만	11	18	18	29.5
	40~50세 미만	16	10	26.2	16.4
	50~60세 미만	5	1	8.2	1.6
	모름	29	31	47.5	50.8
부 모 의 교 육 정 도	무 학	1	1	1.6	1.6
	국 졸	13	13	21.3	21.3
	중 졸	10	7	16.3	11.5
	고 졸	8	8	13.1	13.1
	대 졸	3	4	4.9	6.6
	모름	26	28	42.6	45.9
부 모 의 종 교	기 독 교	7	10	11.5	16.4
	카 톨 릭	4	5	6.6	8.2
	불 교	5	6	8.2	9.8
	곳, 점등을 본다 없 다	0 22	1 17	0 36.1	1.6 27.9
	기 타	23	22	37.7	36.1
부 모 의 직 업	노동직(단순노동직)	23	13	37.7	21.3
	서어비스, 판매직	8	6	13.1	9.8
	사무행정직	1	1	1.6	1.6
	전 문 직	0	0	0	0
	부 업	-	5	-	8.2
	주 부	-	5	-	8.2
	없 다	7	6	11.5	9.8
	모름	22	25	36.1	40.9
부 모 형 태	친 부 모	30		49.2	
	계 부 모	11		18	
	양 부 모	0		0	
	없 다	20		32.8	
주 거 형 태	자 기 집	12		19.7	
	셋 집	전세집	7	26	42.6
		전세방	13		
		월 세	6		
	기 타	23		37.7	

높고, 다음으로는 서어비스·판매직이 13.1%였으며, 무직 또한 1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모의 경우도 단순 노동직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51%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형태는 친부모가 49.2%, 계부·계모는 18%의 비율을 보였다. 주거형태는 셋집이 42.6%였다. 부모에 관한 사항에서 약 절반정도가 '모른다'는 응답을 하는데 이는 대상자가 연소한 아동이며 이들의 대다수가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아동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아동용과 보호자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아동용은 일반적 사항 9문항, 신체적 학대에 관한 사항 10문항, 학대행위 경험후 지지여부를 파악하는 1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호자용은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묻는 1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신체적 학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측정 도구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중에서 폭력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TS는 가족간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지표들로서 논증(Reasoning : A-C 3문항),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 D-J 7문항), 그리고 폭력(Violence : K-R 8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를 구성되어 있다. 폭력척도는 폭력정도가 낮은 문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N문항 이상은 아동학대나 아내학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의 측정도구는 N문항 이하에 해당하는 3개의 가벼운 정도의 학대와 도구를 사용하여 심한 상해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N문항이상인 7개의 학대행위의 1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TS의 응답 범주들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각 항목의 행동빈도에 '전혀없다', '1~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의 범위에 걸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혀없다', '1~2회', '3~11회', '12회 이상'의 4개의 응답범주로 저자들이 대분류하였으며, 대상 집단은 두 집단으로 조작적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즉, 전체 문항에 대해 '전혀 그런적 없다'로 대답한 경우와 K, L, M, 문항중 어느 한 문항이라도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하였으나 N문항 이상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적 없다'로 응답한 경우를 비교집단으로 하고, N문항 이상을 한달에 1회이상 이상 반복 경험한 경우를 학대아동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문제행동 측정도구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정서 및 행동적 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표준화 규준이 이루어진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Child Behavior Checklist(아동행동조사표, CBC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척도만을 사용하

였으며, 각 문항은 0(전혀 없다), 1(가끔 보인다), 2(자주 보인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CBCL은 각 항목의 평가치를 모두 합한 문제행동 총점 이외에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임상 척도들의 점수, 그리고 임상 척도들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얻어진 내향성요인(internalizing factor)과 외향성요인(externalizing factor)의 점수를 각각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준은 1983년부터 예비조사를 거쳐 90년 12월에 마련된 '한국어판 CBCL 표준화 규준'(오경자, 이해련, 1990b)으로, 본 연구 대상과 같은 연령대인 만 6세~11세 남아용을 사용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통계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통계기법으로는 빈도분포(Frequency), 산술평균, 백분율(%)을 구하였고 집단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 대상 아동의 신체적 학대 유형과 정도
연구대상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학대 행위를 학대 항목별 빈도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1) 신체적 학대 경험(표 2)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학대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으로 뺨등을 맞음(65.6%), 물건을 던짐(52.5%) 움켜잡거나 떠밌(4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해를 유발할 확률이 높은 신체적 학대 항목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초리, 굵은 막대기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맞음(72.1%),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물어 뜯음(62.3%), 온몸을 마구 두들겨 맞음(55.8%)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 1회 이상 반복 구타당한 경우도 29.4%, 18%, 14.8%나 되었다. 가장 위험한 학대행위인 담배불에 데임, 흉기로 위협당함, 흉기에 상처입음도 각각 14.7%, 24.6%, 14.7%였으며, 학대의 결과로 병원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아동도 18%나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인 아동학대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2. 신체적 학대 경험(1년간)(%)

문항\빈도		없 다	1~2	3~11	12회이상	전 체
약 한 학 대	(1) 주위의 물건을 집어 나에게 던졌다.	29(47.5)	12(19.7)	12(19.7)	8(13.1)	61(100)
	(2) 나를 움켜 잡거나 때렸다.	35(57.4)	11(18.0)	10(16.4)	5(8.2)	61(100)
	(3) 손으로 뺨등을 때림	21(34.4)	16(26.2)	13(21.3)	11(18.0)	61(100)
심 한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음	23(37.7)	14(23.0)	13(21.3)	11(18.0)	61(100)
	(5) 회초리, 굵은 막대, 혁대, 빗자루등으로 때림	17(27.9)	9(14.8)	17(27.9)	18(29.4)	61(100)
학 대	(6) 온몸을 마구 두들려 께다.	27(44.2)	11(18.0)	14(23.0)	9(14.8)	61(100)
	(7) 담뱃불 등으로 지지었다.	52(85.3)	8(13.1)	1(1.6)	0	61(100)
	(8) 칼, 송곳, 망치, 도끼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46(75.4)	9(14.8)	6(9.8)	0	61(100)
	(9) 칼, 송곳, 망치, 도끼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52(85.3)	7(11.5)	2(3.2)	0	61(100)
	(10) 매를 맞아서 병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	50(82.0)	11(18.0)	0	0	61(100)

표 3. 학대 정도에 따른 행위자

정도\행위자	부	모	친인척	형 제	친 구	타 인	보육원, 보육원생
약한 학대	51	28	5	11	8	12	7
심한 학대	74	30	7	17	7	16	12
합 (%)	125 (24.3)	58 (19.1)	12 (4.1)	28 (9.5)	25 (8.5)	28 (9.5)	19 (6.4)

2) 학대 항목별 행위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자는 표 3과 같다.

학대행위자로는 아버지가 42.3%, 어머니가 19.7%로 이는 학대행위자가 주로 아동의 어머니라는 선행연구결과들(Gehmak등, 1983; Bergman등, 1986)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나 국내의 연구결과들(주영희, 1984; 신영희, 1986)과는 일치한다. 형제간의 9.5%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가정내 학대행위가 71.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또래나 형제관계에서 비롯되는 학대의 경험도 24.4%나 됨은 주목할 만하다.

3) 학대상황에서의 지지제공 여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뒤에 주위 지원체제에서 제공한 지지의 경우 전체아동의 24.6%만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75.4%는 '없다' 또는 '그냥 참았다' 등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론해 본다면, 학대받은 후에 아동들은 어

떠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부터의 보호나 개입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지제공자로는 학대행위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의 이웃, 선생님, 경찰 그리고 친구등의 순이었다.

2.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학대아동 집단은 38명(62.3%)였고, 비교아동 집단은 23명(37.7%)였다.

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두 집단간의 문제행동 총점의 비교 분석 :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아동 집단과 학대아동 집단간의 문제행동 총점을 비교해 보고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위해 t-test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두 집단간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표 4. 문제행동 총점의 집단간 비교

변인\집단	비교아동집단		학대아동집단		T 값
	M	SD	M	SD	
총 문제 행동 점수	33.3043	26.879	59.3158	33.138	-3.18**

(N=61), **p<.01

표 5. 문제행동총점 54점이상과 5%미만 빈도 문항에 응답한 수

구 분	비교아동집단(23)		학대아동집단(38)	
	N	비율(%)	N	비율(%)
54점 이상	4	17.4	19	50.0
5% 미만	14	60.9	29	76.3

있음을 보여준다($p<.01$). 즉, 신체적 학대를 받은 집단의 아동이 비교집단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학대아동집단의 평균 점수는 59점으로 심각한 문제행동을 지녔다고 예측할 수 있는 변별점수인 54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과 내원환아들로 구성된 임상군의 평균 점수인 56점 보다도 더 높은 점수로 이들이 지닌 정서적, 행동적 문제 양상이 매우 심각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두 집단내에 변별점 54점 이상에 응답한 빈도와 한국어판 CBCL 표준화과정에서 응답빈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한 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비교아동 집단에서는 전체의 17.4%가 54점 이상을 보였으며, 학대아동 집단에서는 19명으로 이는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60.9%, 76.3%로 5%빈도문항 응답율은 두

집단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5% 미만 문항에의 응답은 병리적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학대 경험보다는, 오히려 요보호아동들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각 문제행동요인별 비교 분석(표 6 참조)

(1) 각 요인별 비교분석

공격성 요인에서는 두 집단간에는 $P<.1$ 수준에서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을 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는 최윤라의 연구(1988)에서 보여주는 비학대집단과 학대집단간의 공격성의 유의미한 차이와는($p<.001$) 다른 결과이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위축양상을 나타내는 사회적 위축 요인에서는 두 집단간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p<.001$) 있다. 즉, 신체적 학대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두통, 복통, 구토, 천식 등의 신체증상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p<.05$) 있었다. 또한 이 요인에는 악몽, 지나친 죄책감, 우울감 등 증상이 섞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체적 학대의 결과로 아동이 겪게 되는 정서적 우울, 불안감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표 6. 각 문제행동 요인별 비교

요 인	비교아동집단		학대아동집단		T 값
	M	SD	M	SD	
공 격 성	5.7826	6.075	10.4737	8.813	-2.25
사 회 적 위 축	6.6957	4.675	13	7.105	-3.78***
신 체 증 상	0.9130	1.593	2.9211	3.340	-2.70*
정 서 적 불 안 정	0.3043	3.404	7.2368	5.064	-2.46*
강 박 - 우 울	2.2174	3.464	4.6316	4.068	-2.37*
비 행	3.6522	3.880	4.8421	4.143	-1.11
과 잉 활 동	4.3478	3.157	7.6053	3.922	-3.37***
정 신 병 - 성 문 제	0.3478	0.832	1.0526	1.293	-2.33*
외 향 성	1.6087	1.305	2.3684	1.195	-2.32*
내 향 성	1.0000	1.044	1.5526	0.860	-2.24

(N=61), *p<.01, ***p<.001

불안과 긴장감이 높으며 동시에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여 쉽게 심리상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요인인 정서적 불안정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p < .05$)가 있다.

정서적 불안정 요인과 공유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강박-우울요인의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p < .05$ 수준에서의 유의성이 나타난다.

비행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의 비교분석 결과 두 집단간에 비행 행동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대행위 자체가 아동의 비행행동을 유발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자체의 특성이 비행에 많이 노출된 경험이 있는 가출·부랑아가 포함되었다는 표본상의 제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등의 특성에 대해서 두 집단간에 보이는 과잉행동 요인에 대한 차이는 매우 유의미($p < .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사회적 위축 요인과 함께 과잉활동 이 가장 높은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점에서도 기인한다 ($r = .61, p < .001$).

정신병-성문제 요인은 성에 관한 집착이나 성행동의 부적절한 표출과 함께 환청, 이상한 행동과 생각 등의 증상이 묶여 있는 것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p < .05$) 보여주고 있다.

(2) 내향성 요인과 외향성 요인의 집단간 비교

앞에서 살펴본 8가지의 요인들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내적인 심리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내향성 요인(internalizing factor)과 외적인 환경과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고 주로 외적인 행동문제로 나타나는 외향성 요인(externalizing factor)으로 이 두가지 요인에 대한 두 집단간 비교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서 내면적 문제보다는 외면적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점으로는 첫째, 이는 과잉행동 요인의 영향이 경시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축요인의 경우는 혼합양상을 보이는 요인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과잉행동 요인이 포함된 외향성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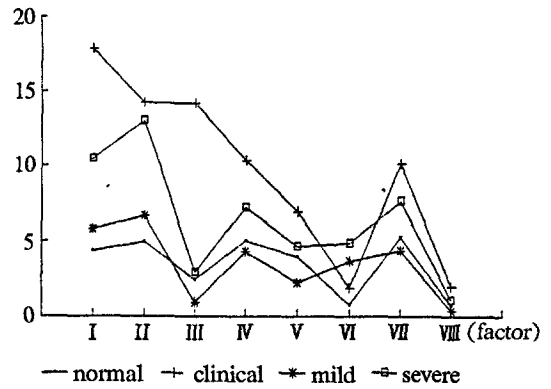


표 7. 정상군, 임상군, 비교아동집단, 학대아동집단간 비교.

이와 유사한 소견은 Conner(1970)의 연구와 홍강의, 홍경자(1983)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일반적으로 외향성 증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는 주로 외향성 증상을 쉽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지는 향후 다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3) 일반정상아동군과 임상군, 연구대상집단간 비교

한국어판 CBCL의 표준화 규준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연령대의 정상군과 임상군과의 문제 행동 총점과 각 요인별 평균치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정상군은 일반 정상아동이고 임상군은 정신과 진료기관에 내원한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비교집단의 아동들은 정상군에 가까운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정상군보다 낮은 평균치를 보이는 요인도 다섯 요인이거나 되었다. 반면에 학대아동 집단은 임상군에 가까운 점수치를 보였으며, 전체요인에서 정상군보다 높았다. 또한 문제행동 총점은 오히려 임상군보다도 높은 점수를 보여 심각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김광일·고복자(1983):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두현(1981):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서울대출판

- 부, pp328-329
- 김연미(1990)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1987) :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1991) : 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제 2 권
- 신영화(1986) :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정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현·홍강의(1987) :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 53-65
- 오경자·이혜련(1990a) :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 452-462
- 오경자·이혜련(1990b) : 한국어판 CBCL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 유안진(1985) :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p212
- 윤명숙(1989) : 알콜중독자의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숙(1989) :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서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pp255-276
- 주영희(1984) :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80 : 71-133
- 최상진(1981) : 벌의 효과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형 탐색. 아동복지 35(19) : 8-12
- 최윤라(1988) :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어린이보호회(1987) : 매맞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어린이 설문조사 제 7 집
- 황린구(1988) :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오경자(1983) : 부모설문에 의한 아동의 행동문제 분석 :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2(3) : 366-374
- Achenbach TM, Edelbrock C(1983) :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Dept. of Psychiatry, Univ. of Vermont
- Brenner A(1984) :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DC, Health and Company
- Fontana VJ(1985) : Child Maltreatment and Battered Child Syndrome.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 ed. by Kaplan HI, Freedman AM, Sadock BJ,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Gelles RJ(1982) : A Profile of Violence toward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 Child Abuse, ed. by Gerbner G, Ross CJ, Zigler E, Oxford,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George C, Main M(1979) : Social interactions of Young Abused Children : 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 50 : 306-318 .
- Gil DG(1970a) : Violence Against Children : Physical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 DG(1970b) : Physical Abuse on Children, Pediatrics. 44 : 856
- Green A(1985) :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ed. by Shaffer D, Ehrhardt AA, Greenhill LL, New York, the Free Press, pp315-335
- Halperin(1979) :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 Kamerman SB, Kahn AJ(1976) : Social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 Policies and Program, Philadelphia, Temper University Press
- Kinard EM(1982) : Experiencing Child Abuse : Effects on Emotional Adjustment. Am J Orthopsychiatry 52(1) : 82-91
- Light RJ(1973) :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 America : A Study of Alternative Polic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43 : 556-598
- Straus MA(1979) :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 J Marriage and Family 36 : 13-29
- Zigler E(1982) : Controlling Child Abuse : Do we have the knowledge and/or the will ? in The United State in Child Abuse, ed. by Gerbner G, Ross CJ, Zigler E, Oxford, NY : Oxford University Press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TO THE EMOTIONS AND BEHAVIORS IN CHILDREN

Ja Young Kwon, M.A., Dong Hyun Ahn, M.D., Jung Sook Lee,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Hwang Sacred-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sequela in the abused child caused by physical abuse. To achieve the purpose,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not or less abused children group and severely abused children group were compar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1 male children who were selected among children under custody at 4 child-welfare institutions in Seoul.

A violence scale in CTS (Conflict Tactics Scale) developed by Straus (1979) was modified and used as a research tool to measure the children's physical abuse. The Korean text of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was also used to measure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bused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 total scores of behavioral problems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control group.
- 2) The comparison of behavioral problems has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social withdrawal, somatic symptom, emotional disturbance, obsessive-depressive behavior, hyperactivity and psychotic-sexual factors.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aggressive and delinquent factors.

The above results presents us the profile of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aused by physical abuse, and can be used as a framework for the treatment,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abused children in the course of social work practice.

KEY WORDS : Physical abuse ·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 Behavioral problem.